# 학교 밖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적 연구

임소연<sup>1</sup>, 박민희<sup>2\*</sup> <sup>1</sup>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A Convergence Study for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s on Smoking in Out-of-School Youths

So-Youn Yim<sup>1</sup>, Min-Hee Park<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고, 부모 양육태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과 충남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282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8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x^2$ -test, 독립표본 t-test,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에 성별, 아버지 교육수준, 음주, 성관계 경험,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 흡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양육태도를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 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학교 밖 청소년, 부모 양육태도, 흡연,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to identify the health behavior and mental health and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s according to smoking in out-of-school youths. The study subjects were 282 enrolled in youth support center located in Seoul and Chungnam areaa,  $x^2$ -test, t-test,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ex, father's education level, drinking, sexual experience, and parental attitu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moking in out-of-school youths. And, it is higher possibility to smoke a group with a high score in parental attitudes. Based of this study's fin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fic smoking prevention and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out-of-school youths according to parental attitude.

Key Words: Out-of-School youth, Parental attitude, Smoking, Convergenc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생애주기를 맞이하는 청

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과업으로 심신의 혼란기를 경험하게 되고, 한국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현상과 이에 따른 부모들의 과 중한 기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1], 진로 및 취업문제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흡연 및 음주 등의 건강태도에 유

Received December 30, 2019 Accepted March 20, 2020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최근 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9세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3 개월 이상 결석자 및 유예자와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미진학자를 지칭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학 령인구의 10%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다[3]. 이들은 규칙적인 학교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낮과 밤이 바뀌는 불규칙한 생활과 식습관으로 건강관리에 부주위할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약물중독 등의 위험요인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4].

청소년에게 흡연은 호흡기 세포 및 조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와 발암물질에 대한 감수성과 질병 이환율을 높이는데[5],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율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79.8%로 나타났다[6].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연구에는[7]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호기심, 친구의 권유와 가족의 영향, 조직의 분위기, 습관, 스트레스 해소, 휴식시간 제공, 친구들과의 친목 도모, 신체적 폐해와 경제 손실, 좋지 않는 시선 등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일반청소년의 흡연요인인 충동적인 성향과 사회적 영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8].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취약한 환경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부는 선택한 삶의 방식안에서 연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고, 흡연, 음주, 약물사용 등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건강증진 서비스 체계의구축방안이 급선무이다[7].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활동으로 성인이 된 후의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9]. 최근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은 사회 환경 및가족 구성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대학진학을 위한 과보호적 간섭과 감독에 의한 잘못된 양육방식형태로 자녀의신체적, 심리적 건강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10].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 및 금연 경험연구[7],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실태연구[11],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6] 등이 있고, 직접적인 중재방안을 개발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문제에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 여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부모 양육태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녀양육방식의 문제로 청소년들의 흡연 등 문제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고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박 청소년의 흡연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 여부에 부모 양육태도의 차 이를 파악하다.
- 4)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호자와 청소년 모두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자로 하였다. 본연구를 위해 필요한 예상 표본수는 G-Power 3.1.7을 활용하여 산출하였고,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은 0.80, 추정 오즈비는 Medium 수준인 1.72로 설정하여 분석한결과, 필요 표본은 177명으로 도출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대비하여 287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일반적 특성, 건강행동 및 정신건강관련 특성, 부모 양육태도, 흡연 항목에서 결측 값이 있는표본 5명을 제외하여 282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서울과 충남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2018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 터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보호자와 청소년 모두 연구 참 여에 동의한 경우에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보호자 동의절 차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담당자가 유선으로 실시 하였다. 보호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 음과 언급하기 싫은 내용은 답변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 문지 작성 후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는 무기명으로 부호화하여 전산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후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였다.

## 2.4 연구도구

## 2.4.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사용한 변수는 총 7개 문항으로 성별, 연령, 경제적상 태, 일주일평균용돈, 아버지학력, 어머니 학력이다. 이 중 경제적 상태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를 물어 상, 중, 하로 분류하였으며, 일주일 평균 용돈은 1만원 미만, 1만원~3 만원 미만, 3만원~5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미만과 10 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아버지학력과 어머니 학력 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이상, 잘 모름으로 분 류하였다.

## 2.4.2 건강 및 심리적 특성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 보정변수로 건 강 및 심리적 특성을 사용하였다. 건강 및 심리적 특성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체형인지, 음주, 성관 계 경험,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을 이용하였다. 주관 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까?'로 질문하여 매우 건강한편과 건강한 편은 '건강함', 보통은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과 매우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 다. 주관적 체형인지는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합 니까?'로 질문하여 '마른 편', '보통', '살이 찐 편 '으로 분 류하였다. 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로 질문하여 1일이라도 마신 날이 있 으면 '음주'로 그렇지 않으면 '비음주'로 분류하였다. 성관 계 경험은 이성과의 성관계, 동성과의 성관계, 성관계경 험 없음 중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을 모두 고르게 하 여 이성 또는 동성과의 성관계가 있으면 '성관계 경험 있 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경험 없음'으로 분류하였

다. 스트레스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 니까?'로 질문하여 대단히 많이 느낌, 많이 느낌, 조금 느 낌을 '스트레스 있음'으로, 별로 느끼지 않음과 전혀 느끼 지 않음을 '스트레스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 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로 파악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 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Rosenberg[12]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드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의 Cronbach's α=.883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 2.4.3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는 부모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녀 의 발달과 행동 및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 모의 상호작용 양태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 기정[13]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3개의 문항 으로 수용-거부요인 11문항, 자율-통제요인 11문항, 비 과잉-과잉 성취압력 요인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에 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적 으로 이해하고 격려와 칭찬을 자주하며, 자녀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존중하고, 학업이나 성취에 대한 압력 이 높지 않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자녀 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고 무관심하며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자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 해 지시나 간섭, 통제가 많고, 성취에 대해 과도하게 기대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의 Cronbach's α=.887로 나타났고, 하위영역 별 Cronbach's α는 수용 .709, 자율 .801, 비과잉 .897 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 2.4.4 흡연

청소년의 흡연은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로 질문하 여 매일 피움과 가끔 피움을 '현재 흡연'으로 분류하였고,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에는 피우지 않음과 피우지 않음 은 '비흡연'으로 분류하였다.

#### 2.5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흡연여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건강 및 심리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  $\chi^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흡연여부에 따른 부 모 양육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과 부모 양육태도와의 관 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및 심 리적 특성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포함하여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흡연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moking

성별은 남자 169명(59.9%), 여자 113명(40.1%)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평균 17.21세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 은 상 53명(18.8%), 중 134명(47.5%), 하 95명(33.7%) 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용돈은 1만원 미만 45명 (16.0%), 1만원~3만원 미만 68명(24.1%), 3만원~5만원 미만 35명(12.4%), 5만원~10만원 미만 62명(22.0%), 10만원 이상 72명(25.5%)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104명(36.9%), 대졸 이상 93명 (33.0%), 모름 85명(30.1%)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교 육수준은 고졸 이하 102명(36.2%), 대졸 이상 95명 (33.7%), 모름 85명(30.1%)으로 나타났다.

Table 1에서와 같이. 흡연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및 독립표본 t-검정을

Variable	Group	Non-smoking	Smoking	Total	x <sup>2</sup> or t	р
Sex	Male	37(40.7)	132(69.1)	132(69.1) 169(59.9)		⟨.001
	Female	54(59.3)	59(30.9) 113(40.1)		20.775***	
Age		17.02±1.53	17.29±1.66 17.21±1.62		1.314	.190
	High	16(17.6)	37(19.4)	53(18.8)		.780
Economic status	Mid	46(50.5)	88(46.1)	134(47.5)	0.497	
	Low 29(31.9) 66(34.6) 95(33.7)		95(33.7)			
	⟨10,000	16(17.6)	29(15.2)	45(16.0)	-	
Allowance per	10,000~29,999	26(28.6)	42(22.0)	68(24.1)		
week	30,000~49,999	13(14.3)	22(11.5)	22(11.5) 35(12.4)		.284
(won)	50,000~99,999	20(22.0)	42(22.0)	62(22.0)		
	≥100,000	16(17.6)	56(29.3)	72(25.5)		
E 3 3	≤High school	26(28.6)	78(40.8)	104(36.9)		
Father's education	≥College	46(50.5)	47(24.6)	93(33.0) 18.917***		⟨.001
	Don't know	19(20.9)	66(34.6)	85(30.1)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27(29.7)	75(39.3)	102(36.2)		.009
	≥College	42(46.2)	53(27.7)	95(33.7)	9.354**	
	Don't know	22(24.2)	63(33.0)	85(30.1)		

\*\* p<.01, \*\*\* p<.001

Table 2. Health behavior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smoking

N=282

N=282

Variable	Group	Non-smoking Smoking Total		Total	x <sup>2</sup> or t	р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39(42.9)	91(47.6)	130(46.1)		
	Normal	33(36.3)	65(34.0)	98(34.8)	0.605	.739
	Not healthy	19(20.9)	35(18.3)	54(19.1)		
Perceived body type	Thin	21(23.1)	63(33.0)	84(29.8)		
	Normal	33(36.3)	48(25.1)	81(28.7)	4.713	.095
	Fat	37(40.7)	80(41.9)	117(41.5)		
Drinking	No	49(53.8)	14(7.3)	63(22.3)	76.869***	⟨.001
	Yes	42(46.2)	177(92.7)	219(77.7)	70.809****	
Sexual experience	No	84(92.3)	75(39.3)	159(56.4)	70.508***	⟨.001
	Yes	7(7.7)	116(60.7)	123(43.6)	70.508****	
Stress	No	54(59.3)	100(52.4)	154(54.6)	1.213	.271
	Yes	37(40.7)	91(47.6)	128(45.4)	1.213	
Depression	No	53(58.2)	108(56.5)	161(57.1)	0.072	700
	Yes	38(41.8)	83(43.5)	121(42.9)	] 0.072	.788
Self-esteem		32.71±7.61	32.67±7.20	32.68±7.32	-0.047	.962

<sup>\*\*\*</sup> p<.001

실시한 결과, 성별( $\chi^2$ =20.775, p<.001), 아버지의 교육 수준( $\chi^2$ =18.917,  $\rho$ <.001), 어머니의 교육수준( $\chi^2$ =9.354, p=.009)이 자녀의 흡연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흡연 집단에서 남자의 비율(69.1%)이 비흡연 집단 의 남자 비율(30.9%)보다 크게 높았고. 아버지의 교육수 준은 흡연 집단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40.8%) 이거나 모르는 비율(34.6%)이 높은 반면, 비흡연 집단에 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50.5%)인 비율이 높았 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마찬가지로 흡연 집단에서 어머 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39.3%)이거나 모르는 비율 (33.0%)이 높았고, 비흡연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46.2%)인 비율이 높았다.

## 3.2 흡연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적 특성 차이

Table 2에서와 같이. 건강행동 및 정신건강 관련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함 130명(46.1%), 보통 98명(34.8%), 건강하지 않음 54명(19.1%)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체형인식은 마른 편 84명(29.8%), 보통 81명 (28.7%), 살이 찐 편 117명(41.5%)으로 나타났다. 음주 를 하는 대상자는 219명(77.7%)으로 나타났으며, 성관 계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23명(43.6%)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인지를 하는 대상자는 128명(45.4%)으로 나 타났고, 우울감 경험 대상자는 121명(42.9%)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평균 32.68점으로 나타났다.

흡연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 $\chi^2$ =76.869, p<.001), 성관계 경험( $\chi^2$ =70.508,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주율은 흡연자(92.7%)가 비흡연자(46.2%)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성관계 경험률은 흡연자(60.7%)가 비흡연자(7.7%)보다 크게 높았다.

## 3.3 흡연여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Table 3에서와 같이, 부모 양육태도는 흡연 집단과

Table 3. Parenting attitude according to smoking

N=282

Variable	Non-smoking (n=91)	Smoking (n=191)	Total (n=282)	t	р
Parental Attitudes	2.11±0.30	2.23±0.45	2.20±0.44	2.584	.010*
Acceptance	2.53±0.39	2.56±0.46	2.55±0.44	.597	.553
Self-regulating	1.97±0.43	2.15±0.53	2.09±0.51	2.853	.005**
Non-hyper parenting	1.85±0.64	1.98±0.53	1.94±0.61	1.687	.093

<sup>\*</sup> p<.05, \*\* p<.01

Table 4. Factors affecting smoking in off-school youth

N=282

Variable		Carrie	Model 1			Model 2		
		Group	OR	95% CI	р	OR	95% CI	р
Independe	Parents' parenting behavior	Low	(reference)					
		High	2.918*	(1.068~7.973)	.037			
variables Self-regula	Self-regulatin	Low				(reference)		
	g	High				2.171	(0.822~5.733)	.118
	C -	Male	(reference)			(reference)		
	Sex	Female	0.290**	(0.141~0.597)	.001	0.289	(0.140~0.597)	.001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reference)			(reference)		
		≥College	0.368*	(0.149~0.920)	.031	0.368	(0.149~0.907)	.030
	education	Don't know	0.944	(0.359~2.483)	.907	1.052	(0.405~2.734)	.918
Adjusting		≤High school	(reference)			(reference)		
	Mother's education	≥College	0.866	(0.353~2.121)	.752	0.953	(0.390~2.324)	0.915
variables	education	Don't know	1.115	(0.411~3.029)	.831	1.077	(0.399~2.909)	0.884
-	Drinking	No	(reference)			(reference)		
		Yes	10.012***	(4.300~23.308)	⟨.001	9.584	(4.151~22.128)	⟨.001
	Sexual experience	No	(reference)			(reference)		
		Yes	10.890***	(4.392~27.001)	⟨.001	10.535	(4.259~26.058)	⟨.001
		x <sup>2</sup> =140	$x^2$ =146.584(df=8, $\rho$ (.001), Nagelkerke R <sup>2</sup> =.566			x2=143.748(df=8, p<.001), Nagelkerke R <sup>2</sup> =.559		

<sup>\*</sup> p<.05, \*\* p<.01, \*\*\* p<.001

흡연을 하지 않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t=2.584, p=.010). 평균 비교 결과 비흡연 집 단(M=2.11)보다 흡연 집단(M=2.23)에서 부모 양육태도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영역별로 비교를 해보면. 자율-통제에서 흡연 집단과 비흡연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는데(t=2.853, p=.005), 비흡연 집단(M=1.97)보 다 흡연 집단(M=2.15)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흡연을 하 는 집단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양육하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4 학교 밖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흡연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변수를 보정변수와 독립변수로 투 입하였고, 흡연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별, 아버 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음주, 성관계 경험을 보정변수로 투입하였고, 부모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투 입한 1모형,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자율-통제 요인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2모형으로 다변량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로 투입한 양육 태도와 하위요인 중 하나인 자율-통제요인을 낮은 집단 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는 기준은 그렇지 않다(2점) 그렇 다(3점)의 중간 값인 2.5점으로 하였다.

모형 1은 카이제곱 통계량은 유의하게 나타나(\*) <sup>4</sup>=146.584, p<.001)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 로 판단되었고, 본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흡연을 약 56.6%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회귀계수 유의 성 검증 결과, 보정변수에서는 성별, 아버지 교육수준, 음 주, 성관계 경험이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성별은 여자의 흡연 가능성이 남자보다 약 29.0% 수준만큼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고(OR=0.290, p=.001),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보다 대학 교 이상인 경우 약 36.8% 수준만큼 자녀의 흡연 가능성 이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OR=0.368, p=.031). 음주는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음주를 하는 경우 흡연 가능성이 약 10.012배 만큼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고(OR=10.012, p<.001), 성관계 경험은 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경우 흡 연 가능성이 약 10.890배 만큼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OR=10.890, p<.001). 그리고 독립변수인 부모 양육태 도는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오즈비가 2.918로 추정되어 부모 양육태도 점수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자녀의 흡연 가능성이 2.918배 만큼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OR=2.918, p=.037).

모형 2는 카이제곱 통계량은 유의하게 나타나( $\chi^2$ =143.748, p(.001)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 고, 본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흡연을 약 55.9%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보정 변수에서는 성별, 아버지 교육수준, 음주, 성관계 경험이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성별은 여자의 흡연 가능성이 남자보다 약 28.9% 수준만큼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고(OR=0.289, p=.001),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이하보다 대학교 이상인 경우 약 36.8% 수준만큼 자녀의 흡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OR=0.368, p=.030). 음주는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음주 를 하는 경우 흡연 가능성이 약 9.584배 만큼 높은 것으 로 검증되었고(OR=9.584, p<.001), 성관계 경험은 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경우 흡연 가능성이 약 10.535배 만큼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OR=10.535, p<.001).

그리고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하나인 자율-통제는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고, 부모 양육태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적 특성의 차이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음주율은 2배 이상, 성관계 경험률은 9배 이상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원시 자료를 이용 하였던 연구[14]에서 중학생의 음주, 흡연, 성경험은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청소년의 건강실태 비교연구[11]에서 음주율과 흡연율, 성관계 경험이 학교 밖 청소년이 심각 하게 높은 상태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학교 밖 청소 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과 건강서비스의 실행 및 대 응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는 흡연집단에 서 유의하게 평균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자율-통제에서 흡연 집단의 부모가 비 흡연 집단의 부모 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아, 흡연을 하는 집단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서의 자율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통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근심, 강제성 보호, 성취욕구 및 성취에 대한 압력, 건강 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13].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양육 및 흡연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는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일 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과 흡연과 관련된 선행연 구에서 부모가 더 허용적이고 비지속적인 양육 태도를 가질 때 흡연과 음주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15]를 본 연구는 일부 지지하고 있다. 부모가 통제적이고, 과보 호적인 태도일 때 음주와 흡연이 높게 나온 연구결과와 는 상반된 결과이다[16].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 흡 연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성, 대학교 이상의 아버지 교 육수준,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 성경험이 없는 경우가 흡 연의 가능성이 낮았다.

일반 청소년의 흡연행동 가능성의 예측하는 변인 분석 연구[17]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 양육행동, 성 별, 사회경제적 수준과 개인적 특성 등이 나타났다. 청소 년기에 경험하는 충동성과 불안감, 음주행위 및 친구 관 계가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결 과는 지지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흡연행동에 대한 위험 혹은 보호요 인이 될 수 있고 청소년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애정 어린 대화를 통한 부모양육은 청소년 흡연문제의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자녀의 자율적 의사 결정과 행동을 존중하고, 학업이나 성취에 대한 압력이 높지 않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흡연 가능성을 2.918배 만 큼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성인기로 접어드는 청소년 은 자율성 및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부모 의 지도 및 감독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포 함한 흡연을 보호하는 영향을 미친다는[19]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 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부모 양육태도를 고려한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 될 것을 기대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과 충남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

에 등록되어 있는 282명을 연구 대상자로 학교 밖 청소 년의 흡연여부에 따른 건강 및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고, 부모 양육태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학교 밖 청소년은 성별, 아버지 교육수준, 음주, 성관 계 경험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 흡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업이나 성취 압력이 높지 않은 부 모의 양육태도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 1) 취약한 사회적 환경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 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 성관계 경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을 조기예방하고 건강한 성 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부모양육태 도 보다는 어느 정도 간섭 및 통제, 행동에 대한 성 취 압력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이를 반영한 부모양육교육 프로그램 개 발연구가 요구된다.
- 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흡연 행동에 미치는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흡연 청소년의 성 별, 다양한 특성과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된 추후 연구가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H. R. Cho & S. Y. Yim. (2018). Convergence study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learn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501-507.

DOI: 10.15207/JKCS.2018.9.11.501

- [2] C. M. Cho. (2013). Health Behavior s on Adolescents with Atopic Dermatitis. Journal of Korean Society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0(1), 57-63.
- [3] H. J. Park, M. K. Song & J. M. Shin. (2015). Study on the efficient method of supporting out-of-school youths.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4] W. K. Yoon, S. R. Yoo, S. Y. Kim, J. Y. Lim, A. R. Em & Y. H. Choi. (2013). A longitudinal survey and support plan for dropouts. Seoul: Research Report of National Youth Policy.

- [5] H. D. Son. (2019). Publication trends in smokingrelated research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n analysis of Korean academic journals. *Journal of the Koeea Convergence Society*, 10(2), 269-276. DOI: 10.15207/JKCS.2019.10.2.269
- [6] K. P. Jo, S. K. Hwang & M. C. Kim. (2015). Building plan of an investigative study on the health status of out of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Counselling*, 23(2), 61-85. DOI: 10.10.3515 1/kyci.2015.23.2.004
- [7] M. H. Park & S. Y. Yim. (2018). A study of experience of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in out-of-school Youth.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2(3), 388-399.

DOI: 10.5932/ KPHN.2018.32.3.388

- [8] J. H. Kim & Y. H. Lee. (2014). The effects of smoking urges and withdrawal symptoms on maintenance of smoking cess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and perceived smoking cessation effec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1), 253-269.
- [9] S. J. Kim & Y. H. Kim, (2017). Review about child rearing attitude of par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0(2), 172-181.
- [10] Y. W. Lee, J. H. Kim, S. Y. Yim, M. O. Chae, H. R. Lee & J. A. Oh. (2014).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of helicopter parenting.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4), 237-246.

DOI: 10.4 094/chnr.2014.20.4.237

- [11] G. S. Park & M. Kim. (2016). A comparative study of health status between students and out-of-school youth.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4(2), 17-26.
- [12]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3] K. J. Kim. (1985).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Perceive Parental Attitudes on Self-concep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23(2), 35–54.
- [14] J. O. Yu, H. H. Kim & J. S. Kim.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debut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3), 159-167.

DOI: 10.4094//chnr.2014.20.3.159

- [15] L. Chassin. (1986). Change in peer and parent influence during adolescence: Longitudinal versus cross-sectional perspectives on smoking init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327-334.
- [16] Y. J. Kang. (1997). A relationship between percieved parenting by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drinking, smoking and substance us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6(2), 27-36.
- [17] Y. K. Kim. (2014). Predictors of Smoking Behavior in Korean Male and Female Youth.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1(2), 63-85.
- [18] S. O. Son, J. J. Jun & H. Y. Park. (2018). Longitudinal

patterns of male adolescents smoking behavior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the role of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2)*, 109-133.

DOI: 10.21509/KJYS.2018.12.25.12.109

[19] S. G. Lee. (2012).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delinquent behaviors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6(6),* 157-185.

DOI: 10.16975/kjfsw.2012..36.006

#### 임 소 연(So-Youn Yim)

[정회원]



- · 198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 학과(간호학사)
- · 200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

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 기질 애착, 학령전기 인지

· E-Mail: ysybest@bu.ac.kr

#### 박 민 희(Min-Hee Park)

[정회원]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 학과(가호학사)
-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 201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간

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건강행위, 청소년 흡연, 보건정책, 도구개발

· E-Mail: minipark@wku.ac.kr